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12월 1일(일) 제1518호

온누리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대학청년부 지역 교회, 기관, 이웃 섬기는 '겨울사역'
12월 7일부터 '사랑앓나눔', 20일부터 '크리스마스 블레싱'

대학청년부 겨울사역이 시작된다. 12월 7일부터 지역 교회 및 기관과 함께 불우이웃,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에 쌀, 김치 등을 전달하는 '사랑앓나눔'을 한다. 12월 20일부터는 지역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성탄절 예배, 이웃 초청잔치, 마을 전도, 어린이사역 등을 하면서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마스 블레싱'이 이어진다.

2024 사랑앓나눔에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청년 955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중앙사회복지관, 신앙장로교회, 수서명화복지관, 산마루교회,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나섬교회, 교남주민센터, 공릉동종합사회복지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등대교회 등을 방문해서 이웃 1,185가구에 쌀과 김치 등을 전달한다.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화계제일교회, 해금강교회, 한송농아인교



사진은 '2023 크리스마스 블레싱'.

회, 황산교회, 당포교회, 남도교포교회, 하서제일교회 등 23개 지역 교회에서 이웃 초청잔치, 교회구

미기, 마사지, 어린이 성경학교, 크리스마스 예배 등을 한다.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 1,3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653명 임직

명예권사 6명, 권사 143명
안수집사 504명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653명이 세워졌다. 11월 30일(토) 오후 4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2024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명예권사 6명, 권사 143명, 안수집사 504명(남자 170명, 여자 334명)이 임직됐다.

2024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는 2부로 나눠 드렸다. 1부에서는 민문기 장로 대표기도, 온누리세라핌합창단 축하 공연, 이재훈 위임 목사 설교 등을 했다. 2부에서는 안수기도, 블라썸챔버 축하 특송,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 권면, 임직 증서 수여 등이 이어졌다.

나미경 권사(신용산공동체)는 "권사 임직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면서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2024 권사·안수집사 임직대상자들은 지난 9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24 임직자스쿨'을 수료했다. 임직자스쿨에서는 '교회론과 목회철학', '온누리교회 비전과 창의적 리더' 등을 주제로 훈련을 받았다. 성경통독, 새벽기도회, 독서보고서 등 개인영성 훈련과 러빙핸드, 주차 봉사, 성찬 포도주 담그기 등 봉사활동도 했다.

/ 홍하영 기자

"이웃들에게 온기를 나눠주세요!"

엔젤트리 사연 2,220건 연결 기다려

2024 엔젤트리 사연 2,220건(11월 27일 기준)이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엔젤트리에는 총 4,309건의 사연이 접수됐다. 치매 걸린 어머니를 돌보며 일용직으로 일하는 형제에게 경량패딩을,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도록 아동용 겨울부츠를, 어려운 가정 형편에 아르바이트하며 생활비와 용돈을 벌어서 동생들을 돌보는 고등학생에게 종합과자세트를 선물해 달라는 사연 등이 도착했다.

2024 엔젤트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국내 온누리교회 로비에 설치된 엔젤트리 데스크와 엔젤트리 홈페이지(angeltree.kr)에서 사연을 뽑고, 사연 속 주인공을 위해 기도하고, 선물을 보내면 된다. 엔젤트리 사연이 연결되면 본부에서 개인 연락처로 이웃의 이름과 주소를 전달해 준다. 선물은 5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엔젤트리 대상자가 크리스마스 전에 선물을 받아보도록 배송을 서둘러야 한다.

문의: 02-3215-3434

교사,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12월 5일부터 매주 목, 토요일 '교사사명교육'

다음세대를 위해 뜨겁게 부르짖는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 '교사,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지난 11월 27일(수)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올랐다. 파워스 테이션의 찬양, 서병화 장로의 기도, 이재훈 위임목사의 설교, 합심기도 등의 순으로 집회가 진행됐다. 차세대 교사와 부모 950여 명(현장 700명, 온라인 250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교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어디에서 예수를 찾는가' (눅 2:41-52)를 주제로 했다. 이목사는 "차세대 사역은 아이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교육하는 일"이라며 "다음세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교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김의진 교사(서빙고 영아1부)는 "내가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다"면서 "내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

떤 분인지를 알아가기를 바란다"고 소망했고, 권경희 교사(부천 소년2부)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바로 선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과 사랑을 알려주고 싶다"고 고백했다. 강태연 성도(성동광진공동체)는 "혼란한 세상에서 방향하는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서 집회에 참석했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신입 차세대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사명교육'도 실시한다. '목요반' 12월 5일부터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반' 12월 7일부터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한다. 사랑부 교사교육은 장애인사역본부에서 별도로 한다.

/ 홍하영 기자

당 회

일시: 12월 7일(토), 오전 6시
장소: 양재 기쁨홀
안간: 2025년 당회운영위원 선출,
2025년 예산안, 장로은퇴식

제 직 회

일시: 12월 8일(일) 2부예배 후
대상: 모든 제직
장소: 양재 사랑홀
안간: 2025년 예산안

공 동 의 회

일시: 12월 8일(일) 3부예배 후
대상: 18세 이상 세례 교인
장소: 양재 사랑홀
안간: 2025년 예산안

2025년 장로장립후보 안수집사 명단 (이하 가나다순, 총 61명)

서빙고		정용주	양재B
강석훈	서빙고	주영창	강남B
강찬욱	이촌	지상목	서초A
국종대	관악금천	하태승	강남D
김동섭	강서		
김동수	영등포구로	캠퍼스	
김동환	마포	고영대	수원
김선귀	이촌	김영생	대전
김진현	신용산	김태형	부천
김희식	동작	박대준	부천
노전기	일산파주	박효신	부천
박기일	OCC	배창준	수원
박명신	김포	오세현	인천
박복용	성북	우시정	부천
신현일	가정사역	유우선	양지
안연환	S브릿지	임창우	강동
이주호	찬양사역	정민호	인천
장관수	동대문중앙	최이정	대전
장승훈	용산	최종필	수원
정기삼	이수	하갑천	인천
정택영	고양은평	한상천	남양주
최병선	양천		
		사역	
양재		김의래	사회선교
구경용	도곡	송영봉	전도본부
김동준	양재A	이봉걸	예배본부
노지준	서초D	정재한	양육본부
박건용	과천의왕	홍호식	회복사역본부
박승병	송파B		
박언용	서초C		
박태식	송파A		
신현식	강남A		
우승엽	분당A	당회운영	
이상준	서초B	남윤영 박태성 이재욱	
장성수	분당B	전진국 최준영	
		명예장로	
		전영한 장남식 정몽준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사도행전〉 28장 30~31절을 보면, 바울은 찾아오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 갇힙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갇힌 것인데,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때 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가르칠 수 있을 뿐입니다. 매우 조용한 말씀 사역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말씀 사역이 로마 제국을 뒤집는 역사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순간 초점이 바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또한 과거의 책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서문은 있지만, 결론이 없습니다. 미완성같이 끝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언하고, 찾아오는 이들을 가르치는 진행형으로 끝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요, 갇힌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사도행전〉 주인공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Acts 29’ 비전이 나오고, 이 비전은 변하지 말아야 할 뜻과 같이 내려져야 하는 온누리교회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방해에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방해에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 31절에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하

나님 나라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수없이 핍박해도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파키스탄, 중국, 이슬람 지역에 있는 여러 지도자의 고백이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세상 권세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방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슬람 세력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독재 국가에서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수많은 세력이 역사 속에 있었지만, 어떠한 방해에도 하나님 나라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증거가 계속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인격적인 능력의 존재로써 계속 퍼져 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이루어 가시며 섭리하십니다. 역사를 사람들이 써 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담대함은 넓은 시야에서 옵니다. 숲에 들어간 사람이 지도가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숲에 들어가도 담대한 사람은 지도를 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길이 보입니다. 이것을 영적 생활에 적용해 보면 지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모든 일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길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지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지도입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

습니다.

바울이 갇히면서 로마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옥중서신을 썼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그것입니다. 이 복음서가 없었다면, 특히 〈에베소서〉가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과 교회의 관계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골로새서〉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는 바울을 로마까지 이끌 뿐만 아니라 그가 로마에 갇힌 기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섭리와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그 일들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중요한 영적 진리들을 나누게 했습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도 로마 교황청의 압박에 시달리면서 보름스의회에 불려가 종교 재판을 받고, 비텐베르크로 돌아오는 여정이 있었습니까.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루터는 독일에서 숨을 곳이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비텐베르크의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살리기 위해서 납치극을 꾸밉니다. 자신이 신뢰하는 부하들을 시켜서 보름스에서 비텐베르크로 돌아오는 길에 무장 강도로 위장해서 루터를 납치합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루터를 납치합니다. 루터가 납치를 당했고, 그가 어디선가 살해당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루터에 대한 관심을 로마교황청으로부터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10개월 동안 가둡니다.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가둔 것입니다. 이 기간 루터가 많은 책을 씁니다. 가장 큰 업적은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사제들이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있었습니다. 사제조차 헬라어 성경을 거꾸로 들고 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루터의 납치극으로 모든 독일 국민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종교 개혁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독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인해서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인해서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탄 배를 폭풍 속에서 지켜 주시고, 몰타섬에서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를 위해 그분의 능력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훼방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한 것입니다. 역사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바로를 통해 모세를 제거하려 했고, 헤롯을 통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하만을 통해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했고,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 사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바울을 제거함으로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하나님이 바울을 의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유능해 보이는 일꾼에 기대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벽하지 않은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완전한 이들이 아닙니다. 미완성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지 않을 때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 때 존재 목적이 함당하지 않기 때문에 쇠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통로가 되기로 작정할 때 위기가 기회이고, 연약함이 능력이 되고, 우리의 미완성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취미생활

두 바퀴로 달리며 창조의 계시를 열어간다

나의 낙넫은 '좋은 나무'다.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 소망을 담아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성경 말씀(마 7:17~18)에서 가져온 이름이다. 나에게서 해마다 같은 종류의 열매가 조금씩 더 실하게 맺히기도 하고, 아주 새로운 열매들이 열려 기쁨을 주기도 한다. 올해 새로운 열매는 자전거를 타면서 맺혀진 것들이다. 돌이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일을 시작하셨다. 두 바퀴로 달리는 자전거 세계를 열어주신 것이다. 운동을 좋아하는 나는 코로나19로 답답해하던 차에 친구의 권유로 자전거를 배웠다. '자전거 21'이라는 사단법인에서 자전거에 올라타기부터 3주 동안 차근차근 배운 다음 첫 한강 라이딩을 나갔을 때 감격을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다. 그 이후 자전거 실력이 일취월장해 전국을 달렸고, 올해 8월에는 국토의 남북을 종주했다. 633km를 5박 6일 동안 완주했다. 동서로는 연 6구간으로 나눠 총 520km 국토횡단을 완주했고, 10월에는 2년마다 일본에서 열리는 '시마나미 국제자전거 대회'에 참가해 완주의 기쁨을 누렸다. 과거 암 수술을 두 번이나 받고 환갑을 넘긴 이 나이에 하나님은 왜 이 엄청난 건강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일까?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안경일진대 나에게서 3년 전부터 아주 새로운 안경이 선물로 주어졌다. 자전거라는 새로운 안경으로 바라보는 창조의 세계는 그야말로 신세계다.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으면서 쪽쪽 나아갈 때 펼쳐지는 자연과 사람,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세

계에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 달릴 때 얼굴을 스치는 신선한 바람은 마치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성령의 바람처럼 나를 터치하신다. 하나님이 에덴동산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환경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과 즐겁고 충만한 관계로 영원히 살고 싶으셨던 그 마음이 바람을 타고 나에게 속삭이는 것 같다.

사람마다 흥미를 느끼고 좋아해서 즐기는 취미가 다양하다. 활발하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조용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 등 취미가 정말 다양하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찾으면 무척 행복해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취미생활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오장육부와 함께 얼굴 모양, 키, 성격과 기질 등을 그야말로 신묘마축하게 만드신다. 나를 지으실 때 넣어주신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이 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즐거워하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신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찾아내 맘껏 누리며 행복해하는 당신의 자녀를 바라보며 흐뭇해하신다(전 3:22).

로렌스 형제는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나는 자전거로 달리며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나와 함께 자전거로 달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한다. 하나님은 나만 따라오라고 하시며 앞에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고, 옆에 와서 나란히 달리시며 코치하기도 하고, 뒤에서 든든하게 밀어주시고 지켜주시기도 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연과 환경을 잘 보존 관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친환경적이라는 면에서 자전거 타기는 매우 고무적이다.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서 운전을 하지 않기로 하고 차를 처분했다. 이제는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지공족'이 되어 더욱 자동차의 세계와 멀어졌고, 자전거 세계가 도래하였다. 자전거 세계로 들어오고 나의 건강과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물론 교회 밖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부쩍 늘었다. 주로 교회 사역에 몰두해 열심을 내었던 나로서는 진짜 믿음을 시험하고 보여줄 세상 속 삶으로의 확장이며, 전환이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는 일반은총과 영역주권의 적용이 내 삶으로 강력하게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일반은총이란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미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말한다. 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믿는 자에게만 허락된 구원의 은혜를 특별은총이라고 말한다. 카이퍼는 일반은총을 영역주권으로 체계화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한다. 즉 모든 영역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므로 그리스도인은 각자 속한 영역에서 청지기적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취미생활도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오랜 시간을 특별은총 속에서 행복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코로나19라는 격리된 시기에 자전거를 통해 일반은총의 광대함으로 나를 인도해주셨다. 자전거를 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접촉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로 일반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는(요 3:16)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을 이전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품을 수 있게 되었다. 취미생활을 통해 비기독교 세계를 접촉하며 사회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공적 책임을 느끼게 되었고, 나의 삶으로 믿음을 변증할 기회를 확실히 얻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내야 할 상황에 던져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전거 타는 활동에서 나의 실력과 성품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반사함으로써 영광을 올릴 때 나는 또다시 특별은총으로 들어가는 신비를 경험한다.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이라는 두 바퀴로 달릴 때 열리는 계시의 세계는 실로 충만하며 감사가 넘친다. 그리스도인의 취미생활이 그냥 좋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다면 허무할 수 있다. 그 취미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과 소명까지 발견한다면 얼마나 의미 있을까? 오늘도 나는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를 생생하게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과 격려의 속삭임을 들으며 두 다리로 힘차게 페달을 밟아 나아간다.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김영옥 성도
(중종로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특별기고

악천후는 누구의 책임인가?

2주 만에 거대한 허리케인이 두 차례나 미국을 강타했다. 이후 몇 날 몇 주 동안 이념적으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자연적이지 않은 재해'라고 규정했다. 많은 정치, 언론, 활동가들이 이러한 폭풍이 전례 없는 일이며,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보도했다. 사실 이번 폭풍은 전례 없는 폭풍이 아니었다.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언급했듯이 지난 2세기 동안 많은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강타했었고, 그 위력은 이번과 같거나 더 컸다. 실제로 남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최악의 허리케인 대부분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발생했다.

기후 운동가들에 질세라 '머조리 테일러 그린'과 몇몇은 허리케인 '헬린'과 '밀턴'을 딥스테이트(Deep State)의 사악한 세력 탓으로 돌렸다. 이러한 폭풍이 애플레치아와 플로리다에 사는 공화당 지지자들을 겨냥해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직접적인 대응을 할 만한 가치가 없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정치적 스펙트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음모론에 적어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부분 음모론은 인류의 힘에 대한 과장된 생각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자연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힘이다.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은 모더니즘의 특징이자 오늘날 수많은 음모론이 확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밴쿠버 리젠트대학의 크레이그 게이는 수십 년 전 <현대 세계의 길>에서 '세속화가 어떻게 인류를 실제보다 더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상상하게 만드는지'를 설명했다. 세상이 창조물이라면, 그것도 좋은 창조물이었더라면, 이 세상은 창조주가 지금처럼 만드셨을 리 없고, 이토록 재앙의 위기에 처한 채로 놔두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와 스티븐 제이 굴드나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영향력 있는 세속 사상가들은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자연주의적 신다윈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존재할 확률은 터무니없이 희박하다. 그 과정에서 조금만 다른 요인이 발생해도 인류는 멸종했을 것이다. 따라서 기후가 일으키는 아주 작은 변화가 현재 인류가 누리는

우연적이고 무의미한 상황을 끝낼 수도 있다. 이것은 인간에게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는 힘을 부여하는 유토피아적 동전의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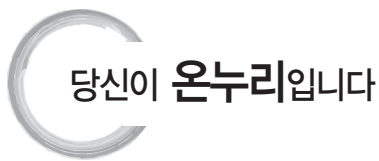
둘 다 사실이 아니다. 동시에 인간은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고, 우리가 자신에게 지나친 신뢰를 주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거대한 기계 팔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무인 버스를 세상에 내놓을 때면 우리가 날씨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집단적 취약성을 완화할 수는 있어도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아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은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욕이 선한 사람에게 왜 이 모든 나쁜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을 때 깨달은 것처럼, 그의 질문은 다른 질문으로 답을 얻었다. 하나님의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욕이 알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더 어려운 질문이었다.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위로되기도 한다. 이 순간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는 나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대부분은 인생의 많은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신이 아니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대한 폭풍우보다 훨씬 작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망상과 오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 인간이 타락을 가져왔지만, 날씨를 통제할 수는 없다. 인간이 세상을 망가뜨렸지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감독하고 계신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면, 세상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브레이크포인트 진행), 티모시 D 패젯(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신학자, 역사신학 박사)
원문: breakpoint(20241119)



“나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박일구, 신인순 선교사의 끝까지 선교 인생!

그들의 선교 열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감동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들에게 “당신이 온누리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반평생을 선교지에서 건축 선교사로 섬겼고, 온 가족이 선교를 마음에 품고 2대(代)가 선교사가 되었으며, 남편을 선교지에서 잃었는데, 선교지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그곳에 간 선교사가 있다. 그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품고,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오늘도 선교한다.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차례로 소개한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박일구, 신인순 선교사 부부다.

박일구, 신인순 선교사가 지난 10월, 70세 나이로 선교사 은퇴를 했다. 그들 부부는 28년을 선교지에서 보냈다. 이제는 설 법도 한데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박일구, 신인순 선교사 부부는 “선교만 생각하면 행복이 가득하다”고 고백하며 끝까지 선교 인생을 살고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나이가 들면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난다고 한다. 박일구, 신인순 선교사 부부를 만나고 나서 그 말을 단박에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 진한 행복이 가득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야기 나누는 내내 그 행복과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들을 행복하고 웃게 만드는 이유는 다름 아닌 선교다. 선교만 생각하면, 선교지를 떠올리면 자기도 모르게 천진난만한 웃음이 터진다고 했다.

인생을 뒤바꾼 ‘행복한 선택’

박일구, 신인순 선교사는 전문인 선교사다. 건축과 전기 공사에 탁월한 박일구 선교사의 재능을 선교에 적용했다. 그들 부부는 28년 동안 10개국 넘게 다니면서 교회를 14개나 세웠다. 어디 교회뿐인가? 학교와 보건소, 선교지 주민들의 집도 지었다. 이 대단한 업적은故 하용조 목사의 말 한마디에 순종한 결과다.

박일구 선교사와故 하용조 목사는 온누리교회 건축 당시 처음 만났다. 당시 전기 회사에 다니고 있던 박일구 선교사가 온누리교회 전기 공사 책임자로 들어왔다. 원래 박일구 선교사는 큰 규모의 공장 전기 공사 책임자로 가기로 했었는데, 회사 사장의 권유로 온누리교회 건축 공사에 참여하게 됐다. 그 회사에 교회를



제2의 선교 인생을 시작하는 박일구, 신인순 선교사 부부.

다니는 사람이 박일구 선교사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만 해도 박일구 선교사의 신앙이 깊지 않았다. 그런데 온누리교회 건축 공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박일구 선교사의 마음에 교회를 건축하며 느끼는 기쁨과 재미가 피어올랐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기쁜 마음으로 늘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질 않았다. 온누리교회 건축은 그에게 절대 잊을 수 없고, 가장 행복한 첫 번째 교회 건축이었다.

박일구 선교사는 온누리교회 건축에 참여하면서 등록 성도가 됐다.故 하용조 목사를 그때 알게 됐다. 공사 책임자로 성실하게 일하는 박일구 선교사를 유심히 보던故 하용조 목사가 그에게 교회에서 일해볼 것을 제안했다. 당시 현장 책임자로 일하던 박일구 선교사가 받던 월급과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는 차이가 컸다.

“하용조 목사님이 교회에서 같이 일하자고 하시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이 됐습니다. 뭐니 뭐니해도머니(money) 아깝니까(웃음). 그런데 이상하게 바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믿음이 정말 작은 사람이었는데, ‘교회에서 일하면서 예수님 한번 잘 믿어 보자!’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교회 직원이 됐습니다. 그때 그 결정이 제 인생을 뒤바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하고, 행복한 선택이었습니다.”

“내 이름 한번 전해보지 않겠니?”

교회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이나 지났을까? 박일구 선교사의 인생을 또 한 번 뒤집는 선택이 다가오고 있었다. 1986년 WEC 선교부 소속으로 서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사역하던 이재환 선교사가 온누리교회 간증 집회에 왔다. 그 집회에서 이재환 선교사가 감비아에 청소년센터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목수, 용접공, 전기공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방수실에서 그 간증을 듣고 있던 박일구 선교사의 가슴이 두근거리

기 시작했다.

“그날 이재환 선교사님의 간증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웬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곳에 사람이 필요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일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박일구 선교사는 1년 뒤 서아프리카 감비아에 도착했다. 당시만 해도 항공편이 좋지 않아 장장 16~18시간을 날아가야 하는 거리였다. 사실 그때 아내 신인순 선교사의 배속에 3개월 된 아기가 있었다. 임신한 아내를 한국에 혼자 두고 타지로 떠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로 발걸음을 옮겼다. 박일구 선교사는 그렇게 감비아에서 6개월 동안 청소년센터 건축 현장 일을 도왔다. 그곳에서 그 무엇보다 값진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감비아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무슬림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일구야, 이거 봐라.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산다. 여기서 내 이름을 한번 전해보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네. 아버지! 꼭 이곳에 다시 와서 한 영혼에게라도 예수님 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박일구 선교사는 감비아를 가슴에 품고 선교사 파송을 준비했다. 신인순 선교사 배속에 있던 아기가 태어나면 곧바로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선교지로 떠나려 했던 박일구 선교사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은 10년을 준비시키셨다. 그리고 감비아가 아닌 새로운 선교지를 열어주셨다. 1997년, 그의 첫 선교지 이스라엘로 파송을 받았다.

“제게 남은 것은 행복뿐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마십시오”(롬 12:15-16).

박일구 선교사가 마음에 품은 말씀이다. 이 말씀을 품고 28년 동안 이스라엘부터 스리랑카, 네팔, 르완다, 모잠비크, 말라위, 우간다 등 11개 선교지를 돌아다녔다.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박일구 선교사가 사역지를 돌아다니며 세운 교회가 14개다. 학교와 보건소, 집까지 합치면 셀 수도 없다. 그가 세운 건물에서 어떤 이들은 꿈을 꾸고, 어떤 이들은 건강을 되찾고, 어떤 이들은 예배드리고 있다. 이 정도 되면 우쭐한 마음이 들 법도 한데, 박일구, 신인순 선교사는 겸손했다.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교회에서 일해 보자던故 하용조 목사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전해보라던 하나님의 말씀, 선교지 영혼들과 함께 울고 웃으려던 성경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보니 제게 남은 것은 행복뿐입니다. 쓰러져가는 집을 보수해 주면 환하게 웃는 사람들, 공부할 곳이 생겼다면 방방 뛰는 아이들, 비가 세지 않는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들이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제가 더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참 행복한 선교사구나’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박일구, 신인순 선교사 부부는 지난 4월 니카라과공화국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선교사 은퇴를 했다. 28년 동안 이어진 행복한 선교 활동을 마무리했다. 70세, 선교사 은퇴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선교지를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또다시 부르셨다.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을 제2의 선교지로 여기며 끝까지 선교사로 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에는 조선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 박일구, 신인순 선교사 부부가 사역했던 스리랑카, 네팔 등지에서 온 근로자들이 있다. 박일구, 신인순 선교사 부부는 그들의 모국어로 친근하게 말을 걸고,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박일구, 신인순 선교사가 삼호읍에 내려간 지 세 달째인데 벌써 15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교제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박일구, 신인순 선교사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성경적 부모를 위한 '부모 면허'

자녀는 부모가 얻어야 할 한 영혼

박인경 사모
(한국심리상담연구소)

이번 글에서는 ‘자녀는 부모가 얻어야 할 한 영혼’을 주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역할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주제에는 여러 의미가 있다.

첫째,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영혼이라는 의미다. 부모가 자녀를 낳기는 했지만, 부모 소유가 아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부모 생각에는 자녀를 교회에 보내면 목회자와 교사가 자녀의 영혼을 맡았다고 생각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부모에게 먼저 자녀의 영혼을 맡기셨다. 자녀의 영혼은 부모가 돌봐야 한다.

둘째, 자녀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 밭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심고 가꿔야 한다는 의미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마음속에서 잘 자라도록 가꿔줘야 한다.

셋째, 자녀의 구원을 확신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흔히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가 무조건 자신들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착각한다.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알아서 교회에 잘 가고, 알아서 믿음이 생기고, 알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거로 생각한다. 그러나 같은 집에 사는 내 자녀라도 세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창 18:19, 새번역).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보여 줘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부모가 된 이유라고 말씀하신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다. 자녀들이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우글거리는 곳이라는 사실이다. 악한 영은 보기만 해도 무서운 귀신의 모습으로 돌아다니지 않는다. 악한 영의 작전은 자연스럽게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남들이 하는 대로 열심히 자녀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자녀의 영혼을 얻으려면 세상과 다른 힘든 길을 걸어야 한다.

자녀의 영혼을 얻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자녀의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상담 심리학에 관한 어느 책에 ‘한 인간의 성장과 정은 부모로부터 이해받는 과정’이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 그 문장을 읽고 종일 눈물이 났다.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눈물이 난 이유가 있었다. 내가 부모님에게 이해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많은 부모가 “나도 우리 부모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컸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내 자녀에게 그런 아픔과 서러움을 넘겨주지 말자.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읽어주고 편이 되어 줄 때 자녀는 ‘나는 이해 받았다’고 생각하며 넘치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둘째,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신의 행동에 신경을 쓰고 모범을 보일 때 자녀들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간접적이지만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부모의 모범’이다. 자녀가 바르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을 때 부모는 ‘저 부분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생각해야 한다. 자녀가 스마트폰을 많이 해서 속상하다면 “스마트폰 내려놔!”라고 잔소리하기 전에 부모 자신은 스마트폰을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본받을 점이 많은 부모를 통해 자녀는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일부러 배우지 않아도 본 것처럼만 살면 되기 때문이다.

셋째,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해야 한다. <잠

언> 3장 5~7절 말씀을 읽어보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씀이 자녀 양육에 큰 교훈을 준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의 지혜를 의지할 때가 많다. 자녀에 대해 확신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다. 자녀를 부모의 지혜에 따라 키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이자 악이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가능한 일이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세상의 교육 방식에 수없이 흔들릴 수 있다. 내 자녀만 뒤처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몰려올 수 있다. 그러나 자녀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우리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신뢰해야 한다.

인생은 속도전이 아니다. 부모들이 속도 전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사막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고 북극성을 바라보며 여행한다면 별을 얼마나 집중해서 바라보겠는가? 이처럼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얻어야 할 한 영혼으로 봐야 한다. 자녀의 인생길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다면 북극성 같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쫓아야 한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 순위대로 자녀 양육에 힘쓰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한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박인경 사모의 부모 면허 3편 자녀는 부모가 얻어야 할 한 영혼’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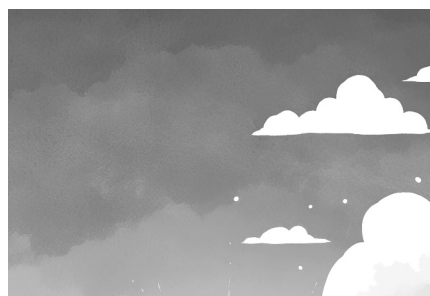
글: 그림 명난희

79. 발자국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11월 25, ‘요한계시록 3장 14~20절’



1.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믿고,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미지근하게 믿다가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열심을 내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이 교회는 어디일까요?

① 안디옥교회 ② 온누리교회 ③ 라오디게아교회 ④ 고린도교회

2.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요한이 신비한 것을 보았는데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고 알맞은 답을 모두 찾아보세요.

① 지옥 ②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③ 열두 제자 ④ 24개의 보좌에 앉은 24명의 장로들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창조과학 가을 탐사를 다녀와서

정말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어창독클’ (어린이 창조과학 독서클럽) 맴버 백예준이에요. 어창독클에서 버스를 타고 가을 탐사를 다녀왔어요. 4시간 정도 걸렸는데 버스에서부터 강의가 시작됐어요. 강의 주제는 ‘대홍수는 사실이다’였어요. <창세기>에 기록된 대홍수 사건이 있는데, 노아가 600세 때 약 1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약 4,500년 전 ‘뭍’이라는 대홍수가 있었는데, 노아가 방주를 탄 7일 뒤에 비가 내려서 온 땅을 덮었대요. 땅속에 있는 깊은 샘들이 모두 터졌대요. 마그마와 함께 물이 터져 나와서 대서양의 중앙해령도 생겼대요. 저는 지구 속 맨틀 속에 있는 물의 양이 바다에 있는 물의 양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놀

랐어요.

재미있는 노아 홍수 강의를 듣다 보니 어느새 전주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고, 병원을 세워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음에는 마이산에 갔어요. 마이산은 역암으로 된 산인데, 그곳에서 거대한 역암층 형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역암층은 큰 돌들이 물에 떠밀려와서 생긴 대홍수 사건의 증거라고 해요. 대홍수 사건의 증거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게 신기했어요.

다음날에는 ‘ㄱ자’ 교회로 불리는 김제 금산교회에 갔어요. 금산교회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ㄱ자’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조덕삼 장로님이 머슴을 목사님으로 섬긴 감동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적벽강과 채석강에 갔어요. 거기서 우리는 지층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라게, 게, 바다새우를 잡고 놀았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창조과학 가을 탐사가 끝나서 아쉽지만,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볼 수 있어서 의미 있고 즐거웠어요!

백예준 학생
(서빙고 초등1부)

멘토가 멘티에게

그 DNA, 그 이름은 ‘RUN’

“‘선교’를 생각하면 부담부터 앞섭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까요?”

상반기 CGN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바울로 부터’를 보고 우리 삶과 신앙의 교집합에 늘 ‘선교’가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증인 된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그에게 깃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열심을 크게 체화할 수 있었다.

세상에 명언이나 격언이 넘쳐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예수의 흔적’,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처럼 큰 감동과 위로, 도전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학술적이면서도 서정적이고, 날 것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말들이 또 있을까?

놀라운 것은 이 어록이 바울, 그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점이다. 물론 바울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의 고백은 하늘에 흠어지고 바위에 부서지는 공허한 메아리

가 아니었다. 행동으로 그 말을 확증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아름답고 생생한지를 보여주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금수저였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흔적을 새기기로 예정하셨다. 하나님은 ‘다메섹 프로젝트’를 계획하시고 바울을 하나님의 금수저로 세워주셨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기독교 최대 탄압자를 기독교 최고 실권자로 만든 하나님의 한 수로 한 사람이 전환됐고, 온 열방이 전환되는 성령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전환’은 다메섹이라는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바울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안의 또 무엇이 그를 이방의 빛이자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었을까?

바울의 내부에는 하나님께 새김 받은 DNA가 있었다.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든 하나님의 DNA가 있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번에 바울을 사도가 되게 한 그 DNA의 이름은 ‘RUN’이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본 적 있는가? 불편한 다리, 남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지능을 가진 ‘포레스트 검프’는 어느 날 같이 또래의 괴롭

힘을 피해 도망쳤다. 그러다 소년은 누구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자신의 재능을 깨닫고 달리는 삶을 살아간다. 바울은 성경의 포레스트 검프와 같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끊임 없이 달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성경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빌 2:16, 3:14 달음질, 달려가노라, 딤후 4:7 달려갈 길, 히 12:1 우리 앞에 당한 경주, 고전 9:24~26 달음질). 그가 달려 지나간 자리에는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 소리가 가득했음을 알 수 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항상 역동적이었던 사도 바울의 육체적 결승점은 로마였고, 영적 결승점은 하나님 나라였다. ‘이젠 되었겠지’라고 생각한 순간 바울은 배에 올라타 있었다. 팀을 꾸려 N차 선교여행을 진행했고, 사십에 가까운 매를 맞고 있었으면서도 여러 편지 서신을 집필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바울이었기에 그의 달음박질을 멈추는 게 하는 것은 세상에 그 무엇도 없었다.

다시 하나님의 DAN로 넘어가 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빌 1:8), 보혈의 피(히 9:22)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의 DNA가 신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핏속까지 완

전한 새사람이 된다. 겉과 속이 동시에 뒤집히는 일이 필요하다. CGN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를 보면서 ‘신의 설계도’라 불리는 DNA에 하나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RUN’을 박아놓으셨음을 깨달았다. 부활의 신앙(Resurrection), 항상 유기적으로 행하는 신앙(Underway),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Nevertheless)과 이 DNA는 수천 년을 지나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며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증인인가?

스스로 시험해 보고 확증해 보라. 사도 바울은 이 명령적인 호격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딤후 4:15~16).

RUN! 뛰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딤후 6:11)!



조호동 멘토
(W공동체)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서로를 섬기는 ‘부부’

가장 모범이 될 섬기는 사람의 역할은 자기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인 혹은 고용한 사람의 뜻을 따라 열심히 순종하는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불러준 사람의 명령과 부탁을 습관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섬기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 아닐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가 하기 싫은 게 있더라도 때로는 해내는 게 섬기는 사람의 역할이다.

부부에게는 서로를 섬기는 역할이 주어졌다. 누구도 명령하고 강요하는 위치에 있을 수 없다.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는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부부다. 자기 것만 주장할수록 부부는 충돌과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이 제자와 성도를 섬기듯이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를 섬겨야 한다. 부부가 가정에서 섬기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필요가 아닌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해야 한다. 배우자의 필요를 우선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자기만족이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의 만족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떤 남편은 세탁을 열심히 하다. 눈에 세탁물이 보이기만 하면 모아서 세탁기를 돌린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세탁기를 돌리면서 가정의 모든 세탁물을 깨끗이 하는 노력을 한다. 남편의 수고로 인해 가정에서 방치되거나 굴러다니는 세탁물을 찾아볼 수 없다. 세탁이 잘

된 옷가지지를 보면 뿌듯한 마음이 들어서 더없는 기쁨을 느낀다. 스스로 집안에서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맞벌이하나는 아내가 몫시 기뻐할 거라는 기대를 했다. 그런데 아내는 빨래가 다된 집안을 보면서 감동이 그리 크지 않다. 아내가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은 빨래가 아니라 청소이기 때문이다. 집 안 구석구석에 보이는 크고 작은 먼지들과 머리카락들이 몹시 불편했다. 남편은 열심히 빨래하면서 아내의 칭찬을 기대했는데, 아내는 자신의 필요, 즉 집안의 청결이라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여전히 불편함을 느낀다. 집에 돌아와 청소를 하고, 걸레를 밀어야 했다. 아내의 우선적인 필요는 집 안의 청소였다. 이 상황에서 남편이 섬기는 자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아내의 불편한 마음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배우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을 먼저 하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이는 섬기는 자의 올바른 모습일 것이다. 자신은 잘하는 빨래를 열심히 하고 싶지만 잠시 내려놓고 집 안 구석구석 청소를 먼저 실행하는 게 섬기는 자의 역할이다. 물론 아내도 섬기는 자의 자세로 남편과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자신의 기준을 지나치게 가족들에게 강요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아내의 청결도를 남편과 가족에게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서로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부부는 끊임없이 자신의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끌어야 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는 섬기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섬기는 자는 자신의 기대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의 필요가 무엇인지 부단히 묻고 순종해야 한다. 부부와 가족이 섬기는 자의 순종을 배우면 유익하다.

섬기는 자가 자신의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았다면 그다음으로 대화하며 서로의 생각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올바른 섬기는 자는 그저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무 의견 없이 복종하는 사람도 아니다. 충분히 그리고 끊임 없이 자신의 마음을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서로의 생각을 조율할 수 있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부부는 자신과 배우자의 생각이 참 다르다는 것을 자주 느낀다. 같은 것 같으면서도 참 다르다. 따라서 섬기는 자의 태도가 필요하다. 자신의 이야기도 충분히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배우자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참 다른 두 사람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부부가 사랑을 느끼는 공통된 지점은 서로를 위해 마음을 쓰고 있다고 느끼는 어떤 지점일 것이다. 자신의 가려운 곳이 아닌 배우자가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 줄 때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그 고마움이 커져서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의 감정으로 발전하게 된다.

자신의 필요도 적극적으로 배우자와 가족에게 말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가려운 곳,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것을 배우자 혹은 가족들이 채워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빨래했던 남편은 집에 돌아온 아내의 표정을 보고 실망했을 것이다. 아내의 가장 큰 필요는 빨래가 아니라 청소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른다. 아내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편도 자신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남편의 필요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빨래해 준 것에 대한 칭찬일 것이다. 가사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애쓴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더없이 기쁠 것이다. 서로 다른 필요와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좋은 태도 변화는 섬기는 자의 역할을 기억하는 것이다. 섬기는 자로 어떻게 배우자와 자녀들을 대할지 생각해 보고, 자신의 틀을 깨 보는 태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부부는 서로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 저자)

맛있는 말씀 해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고후 12:9)

최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끝났다. 수고한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많은 수험생이 시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어쩌면 수능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능을 치른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수능 결과가 인생의 성적표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수능 평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생 전체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수능보다 중요한 시험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진로와 전공 선택, 취업, 물질과 성공, 결혼, 자녀 양육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순례의 여정에서 어려운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나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도권을 의심하고 공격했다. 바울이 글에는 능하지만 말에는 졸하며 체험

과 능력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도 아니기에 그는 진정한 사도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놀라운 체험과 환상, 기적, 말의 능력과 인간적인 혈통이 탁월하다고 우쭐대고 있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을 3인칭으로 언급하면서 겸손하게 진리를 위해 부득불(不得不) 개인적인 자랑을 언급하고 있다. 자신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바울이 경험한 14년 전 특별한 기적과 삼전층에 올라가 직접 천

국을 봤다고 말하며 응수한다. 또 자신의 몸 안에 사탄의 사자 같은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어 이 질병에서 회복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고후 12:9).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능력은 네가 강할 때보다 연약할 때 나타난다고 답변하셨다. 바울이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바울은 대적자들이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십자가 영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일갈하는 것이다.

“연약할 때 더 크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복음적 삶의 자세는 수능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과 그의 가족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수능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세상이 필요한 사람을 뽑기 위한 제도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수능시험 결과를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시험의 성공과 실패, 내 안의 강함과 약함을 동시에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

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수험생과 그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기도제목들 가지고 부르짖어야 할 것이다.

첫째,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둘째, ‘다른 사람을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로 여기게 해주십시오.’ 셋째,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메시야로 오신 예수님은 수많은 시험과 고난 속에서 세상적인 힘과 능력으로 강한 자로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오히려 낮아지시고 연약한 자가 되셨다. 강할 때보다 연약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어린양의 심판과 교회의 사명

12월 2일~12월 8일
〈요한계시록〉 7:9~12:6



로 구원받은 성도가 천상에서 누리는 영광을 묵상하자.

▶요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를 본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양께 찬송하니 모든 천사가 옆드려 경배한다. 흰옷 입은 자들은 어린양의 피에 옷을 씻어 그 옷을 희게 한 이들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묵상포인트 2: 어린양이 일곱째 인을 떼시니 ‘일곱 나팔 심판’이 예고된다. 나팔 심판의 대상은 자연 만물에서 인간에게로 향하고, 그 강도가 점점 파괴적이다. 어린양의 심판을 통해 성도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임을 묵상하자.

▶어린양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는 재앙이

묵상포인트 1: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이 벌어지는 이 땅의 모습과 심판주가 계신 천상의 모습이 번갈아 나온다. 7장은 여섯째와 일곱째인 재앙 사이의 막간으로 무대 배경이 천상으로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다. 또 다른 천사가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를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린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 3분의 1이 불타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물 3분의 1이 쓴 물이 되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열쇠로 무저갱을 연다. 연기 속에서 나온 황충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이들을 해친다. 그들의 왕은 아바돈(히브리어) 혹은 아볼루온(헬라이어)으로 불리는 사탄이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유브라테강(유프라테스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묵상포인트 3: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심판 사이에도 막간이 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은 역사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날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선하신 통치가 완성되는 날이다.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 그날을 준비하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 묵상하자.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펼쳐진 것을 본다. 요한이 천사의 손에 퍼 놓인 두루마리를 받아먹으니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된다. 힘센 천사는 두 증인의 능력 있는 사역과 죽음, 그리고 최후 승리에 대해 알려 준다. 이는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들이 멸시와 수치를 당하

고 죽임당할 것을 의미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라”는 큰 음성들이 들린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연약계가 보이며,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드러난다. 요한은 한 여인에 대한 표적을 본다. 해를 옷 입은 여인이 해산하게 되어 부르짖을 때 큰 붉은 용(사탄)이 아이를 삼키려 한다. 여인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여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도망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어린양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뿐이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존귀한 가치를 마음 깊이 새기자. ▶성도의 기도는 금향로의 향연처럼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심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곳이다. 덧없는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자. ▶두 증인의 사역은 오늘날 교회의 사명을 일깨워 준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수치와 멸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증인의 삶을 살자. ▶사탄과 귀신들은 보이지 않지만 실재한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주님의 군사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남편 김현준
집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출근길에 뇌출혈로 쓰러진 김현준 집사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렸었습니다. 많은 분의 기도와 응원으로 상태가 호전돼 재활 치료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 눈을 깜빡이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11월 20일 CRE(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에 의한 발병)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재활 치료가 통제되었습니다. 또 12월 5일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그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뇌출혈 발병 이후 3개월은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CRE가 완치돼 얼마 남지 않은 가장 중요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치료를 위한 병원을 무사히 옮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잘 극복해 나가도록 기도해주시고, 이 모든 순간이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고, 어린아이들이 매일 애타게 아빠를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오는 평안으로 안정감을 찾도록 기도해주시고, 아울러 출근길에 일어난 뇌출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분의 방법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해주시고

/ 김미선 성도(강서공동체)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한국의 기독교문화 유산’

순교 위에 세워진 ‘장흥교회’ (2)



임찬웅 집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해설사, <한국기독교
역사와 문화유산>
저자)

신한청년단 사건으로 교회가 무너진 상황에서 박경룡 목사 후임으로 서기훈 목사가 장흥교회에 부임했다. 그때가 1947년 이었고, 그의 나이 65세였다. 그는 철원지역 감리사, 원산 구세병원 원목, 원산 신고산교회 담임을 지낸 원로목사였다. 갈수록 공산당의 감시가 삼엄한 가운데 서기훈 목사는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했다. 처한 상황은 어찌할 바 모를 암울함뿐이었지만, 참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성도들을 위로했다. 삶으로 보여준 그의 신앙은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교회는 회복되어 갔다. 그러나 얼마 뒤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주변에서는 남으로 피란할 것을 권했지만, “어찌 목자가 양떼를 버리고 갑니까?”라며 거절했다. 남으로 밀고 갔던 공산군이 패퇴해 북으로 후퇴하자 국군이 철원에 주둔했다. 이에 교회 청년들은 그들을 감시하던 공산당원과 그 가족들을 공회당에 감금하고 그 중 2명을 처형하였다. 마침 출타 중이었던 서기훈 목사가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달려왔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이금성 장흥교회 원로장로의 증언이다.

“치안대원들이 좌익 세파와 그 가족들 70~80명을 잡아서 가둔 뒤 처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한청년회 활동으로 옥고를 치렀

기에 갈등이 컸습니다. 이때 외출했다가 돌아온 서 목사님은 이 광경을 보고 사택으로 돌아가 집을 싸셨습니다. 청년들이 놀라 찾아가니 목사님이 호통을 칩니다. ‘나는 전도자로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사랑을 가르쳤지, 원수를 만들고 사람을 죽이라고 가르친 적 없다!’ 그러자 청년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잘못을 회개한 뒤 죄의들을 풀어 줍니다. 이 때문에 중공군 개입으로 다시 남으로 쫓겨갈 때 우익 진영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학살을 막았습니다.”

얼마 안 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철원지역은 다시 공산당 치하에 들어갔다. 다행히도 공산주의자들의 보복은 없었다. 서 목사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장흥리 주민 100여 명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철원이 공산군의 수중에 들어가자 서 목사를 비롯해 성도들이 피란길에 올랐다. 포천군 관인면에서 첫날을 보낸 서 목사는 장흥리 주민 10여 명이 마을을 떠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날 밤, 그는 가족들을 이끌고 장흥교회로 돌아왔다. 피란하지 못한 이들은 반공호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 항공 폭격이 워낙 심했기 때문이다. 서기훈 목사는 반공호에 숨어 사는 이들을 일일이 심방하고 위로했다. 새벽에는 교회 종을 울려서 하루가 밝았음을 알렸다. 낮에는 방공호를 일일이 심방하며 “오늘은 몇 월 며칠이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극복하자”고 위로하며 함께 기도했다. 공포에 질려 숨어 있는 이들은 서 목사의 목소리를 듣고 하루하루를

버텼다. 서기훈 목사는 어느 날 찾아온 후배에게 유언과 같은 시 한 수를 적어주었다.

“死於當死 非當死(사어당사 비당사) 生而求生 不是生(생이구생 불시생)”(죽을 때를 당하여 죽는 것은 참 죽음이 아니요 살면서 생을 구하는 것은 참 생이 아니다).

1950년 12월 마지막 날, 북한군은 서기훈 목사를 연행했다. 1951년 새해 첫날부터 숨어 살던 이들은 서 목사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새벽마다 시간을 알려주던 종소리도 듣지 못했다. 서 목사는 1월 8일, 동송읍 이평리 사문안 계곡에서 총살당했다. 당시 10대 초반이던 이금성 장로가 사모를 모시고 서 목사 시신을 찾으려 눈 덮인 산악지대를 돌았으나 헛수고였다고 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롬 12:17).

사도 바울은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 <로마서> 12장 14-21절을 통해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당부를 한다. 서기훈 목사는 말씀대로 산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오히려 참 죽음을 알았기에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철원은 남한 땅이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은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들어갔다. 장흥리는 다행히 민통선 구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성도들이 합심해서

교회를 일으켰다. 장하진 장로의 고백이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고통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정부에서 140개 천막을 철원에 배정했는데, 무작정 미군을 찾아가 통사정해서 군데군데 찢어진 1개를 얻어 천막교회를 올렸다. 멀리서도 찾아와 100여 명이 몰려 예배를 드렸다. 맨땅 위에 가마니를 깔고 앉아 눈물의 기도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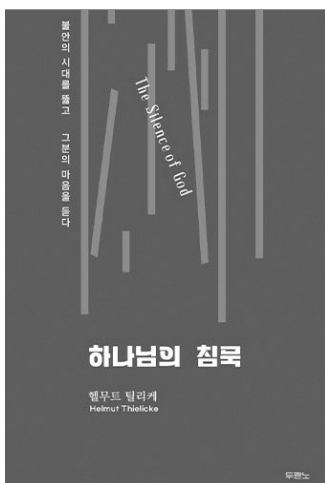
1955년 성도들은 마을 앞 대교전에서 곰보돌(현무암)을 날라 2년 만에 예배당을 건축했다. 지금 장흥교회가 이때 건축된 예배당이다. 눈물과 감사로 세운 예배당이었다. 1983년 예배당을 조금 증축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니 눈물의 예배당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교회와 사택 사이에 서기훈 목사 순교기념비가 있다. 이 비석은 1965년에 제막된 것이다. 서기훈 목사의 유언(死於當死 非當死(사어당사 비당사) 生而求生 不是生(생이구생 불시생))이 새겨져 있다. 이 비석은 또 다른 위상승배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조촐하게 세우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신앙 선배들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교회 뒷산은 ‘장방산’이라 불리는데 산이라 불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낮다. 장방산은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꾸며져 있고, 그 한쪽에 충훈비(忠魂碑)가 세워져 있다. 신한애국청년회 회원 명단과 대한청년단원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제일 앞줄에 각 단체 고문으로 박경룡 목사, 서기훈 목사가 보인다.<끝>

신간 소개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의 침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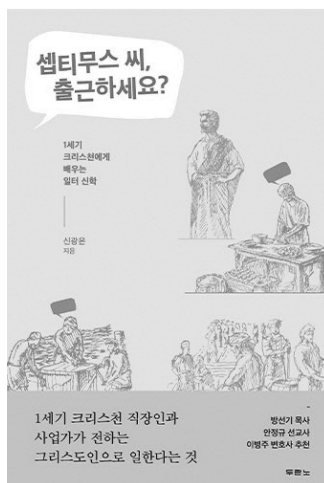
헬무트 틸리케 저 | 두란노 | 12,000원

여전히 세상은 악과 고통, 불안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 속에서 복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깨닫고 싶은 이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누구나 한 번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왜 세상에 이런 악과 고통이 난무하는가?’라는 의문을 품는다. 무엇을 해도 해소되지 않는 불안으로 고민하는 이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며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오해하는 이들, 이 혼돈의 시대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고민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책이 출간되었다.

헬무트 틸리케는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시대에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메시지’를 확실하고 충분히 제시한다.

크리스천에게 일의 의미



<셉티무스 씨, 출근하세요?>

신광은 저 | 두란노 | 22,000원

책을 기획했다. 직장 선교, 일과 소명을 고민하는 청년과 직장인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인간은 일하도록 창조되었고, 부르심을 받았다. 인간은 에덴에서도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있으며, 천국에서도 일할 것이다. 그렇다면 크리스천 직장인과 사업가는 어떻게 일해야 할까? 오늘 작성한 업무 서류와 맞이한 손님에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먹고사는 일에 매몰되지 않고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 일을 이루는 게 과연 가능할까? <셉티무스 씨, 출근하세요?>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한다. 저자 신광은 목사는 하나님 나라 신학이 교회를 넘어 일터와 일상의 영역에서 구체화하기를 소망하며 이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

“우리는 환경 청지기!”

2024년이 한 달 남았다. 2024년 마지막 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환경을 돌보며 ‘환경 청지기’로 살아보면 좋겠다. 12월에는 환경기념일이 3개 있다.

12월 4일은 야생 동물 보호의 날이다.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차에 타기 전 보닛 노크하기 △등산할 때 도토리 줍지 않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가 있다.

12월 5일은 세계 토양의 날이다. 이날은 국제연합(UN)에서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했다. 토양을 보호하는 방법은 △생활쓰레기 배출 최소화하기 △자투리땅이나 경사진 토양에 식물 심기 등이 있다.

12월 11일 국제 산의 날은 국제연합(UN)이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산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 제정했다. 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은 △나무, 꽃, 열매를 함부로 꺾지 않기 △정해진 등산로로 등산하기 등이 있다.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



지난 10월 목사안수를 받고 한 달 정도 목사의 자리에 대해 묵상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차세대 목사의 자리는 목자가 양을 치듯 다음세대를 말씀으로 돌보며 기르는 자

양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입니다. 둘째, 목사의 자리는 나의 어떠한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며 누군가를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움 속에 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매 순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 이상욱 목사(양재 파워웨이브 중등부)

삶으로 설교하는 목사!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감동도 잠시, 제 안에 ‘목사란 무엇이며,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선명해졌습니다. 20대 시절,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당혹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낮아지지만 해라. 내가 한다. 넌 그

상하며 내가 섬기는 예배와 사역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질그릇입니다. 저는 내용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제 소명의 근간이자 바탕이라고 믿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며 부족한 제가 탐구와 기도 속에 정리한 답을 나누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삶으로 설교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섬기는 영혼들로 하나님을 주의시키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편들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편드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 이호준 목사(양재 파워웨이브 고등부)

CGN, ‘한국 교회의 열두 돌’ 영상 제작

기독교 OTT ‘풍당’, CGN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에서 공연한 총체극 ‘한국 교회의 열두 돌(The Twelve Stones of Korean Church)’을 영상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 CGN이 지난달 23일 ‘한국 교회의 열두 돌’ 영상 버전을 발표했다. 공연 영상을 TV 화면에 적합한 16:9 크기로 재작업했다.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제작해 전달

력과 접근성도 높였다. 기독교 OTT ‘풍당’과 CGN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제4차 로잔대회에서 선보인 총체극 ‘한국 교회의 열두 돌’은 <여호수아>에서 기원과 기억을 상징하는 ‘길갈의 열두 돌’(수 4:1-9)을 주제로 한국 교회 140년 역사와 주요인물들을 소개했다.

“한국교회와 탈북민, 어떻게 동행할까?”

온누리교회-한반도평화연구원 특별공동포럼

온누리교회와 한반도평화연구원이 ‘한국교회와 탈북민, 어떻게 동행할까?’를 주제로 특별공동포럼을 12월 16일(월) 오후 7시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에서 개최한다.

온라인(유튜브)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참가신청은 QR 코드로 하면 된다. 한반도 통일과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번 특별공동포럼에서는 교회의 탈북민 사역 30년 역사를 성찰하면서, 교회 안에 제기된 도전과제들을 짚고, 이를 통해 탈북민과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문의: 010-5792-3290



/ 홍하영 기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12월 1일까지 ‘2024 차세대 독후감 대회’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2024 차세대 독후감 대회’를 개최한다. 12월 1일(일)까지 부모와 차세대가 함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읽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고민해서 그 내용을 독후감으로 쓰면 된다.

차세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소속 어린이들이 대

상이다. ‘2024 차세대 독후감 대회’ 독후감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유년부 3장 이상, 초등부 5장 이상, 소년부 7장 이상이다. 12월 1일(일)까지 온누리교회 도서관(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도서관)에 독후감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3215-3110

/ 홍하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탄자니아에 현장 제작형 정수기 보급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달 아프리카 탄자니아 제제레마에서 ‘현장 제작형 가정용 정수기 보급식’을 개최했다. 탄자니아 제제레마는 식수원이 극히 제한된 지역이다. 주변 웅덩이나 우물에서 나오는 물

을 정수 과정 없이 식수로 사용해 수인성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NGO 더멋진세상은 제제레마 주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식수 사용을 위해 ‘현장 제작형 가정용 정수기’ 250개를 보급했다.

온누리M센터 차량 구매 후원금 모금

온누리M센터에서 차량 구매를 위한 후원금을 모금한다. 아프가니스탄 사역에 활용했던 차량이 낡아 폐차했고, 외부 사역 증가 등의 이유로 새 차량이 필요하다. 후원금을 보낼 성도들은 올해 말까지 온누리미션 계좌(하나은행 573-810031-74605)로 송금하면 된다.

문의: 010-5858-4371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모집

내적치유학교 68기 참가자를 선착순 60명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만 원(장소 대여, 간식, 강의 준비물 등 포함).

68기 내적치유학교는 12월 6일(금)부터 8일(일)까지 2박 3일 동안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내적치유와 상처, 역기능 가정의 치유, 학대와 수치심의 치유 등을 주제로 이기원 목사, 최용준 목사, 정희성 목사, 오은규 목사가 강의한다. 문의: 010-7194-1569

135기 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135기 어머니학교’가 열린다. 1월 7일부터 16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어머니학교에서는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자녀양육’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1월 7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2182-9114

결혼문화 세미나 ‘LOVE DIVE’

12월 7일 오후 2시~9시 대학로 이룸 3층

결혼문화 세미나 ‘LOVE DIVE’가 12월 7일(토)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대학로 이룸 3층에서 열린다. 20대 크리스천 미혼 청년이 그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하단 QR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저녁식사 포함). ‘LOVE DIVE’는 2세대 청년들이 크리스천 결혼문화를 이해하

고, 알찬 강의와 흥미로운 콘텐츠를 통해 자연스러운 만남을 경험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LOVE DIVE’에서는 ‘Joyful christmas festival’을 주제로 CCM 가수 정은미가 공연과 캐롤

싱어송을 한다.

문의: 010-9090-6746



12월 14일 탁구인 맞춤형도집회

연말까지 모든 순에서 ‘열린순예배’

2024 탁구인 맞춤형도집회 ‘핑퐁 in Love’가 오는 12월 14일(토) 오후 2시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지하 1층)에서 열린다. 탁구대회, 식사, 설교, 토크쇼 등이 이어진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탁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회비는 2인 3만 원이다.

연말까지 온누리교회 모든 순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주

제로 열린순예배를 드린다. 각 순에서 열린순예배를 기획하고, 실행하면 된다. 열린순예배에는 여러 사정으로 순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나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전도대상자(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를 초대하면 된다. 장소는 가정이나 카페, 영화관, 음식점 등 어디든 자유롭게 선정하면 된다.

문의: 010-3772-3686

(탁구인 맞춤형도집회)



모든 세대가 연합... 2024 이수공동체 수련회 및 아웃리치를 지난 11월 23~24일 파주영산수련원에서 했다. 이수공동체 소속 성도 13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이수공동체 수련회 및 아웃리치에서는 운동회, 종강예배, 단체 미션, 포천하랑센터 아웃

리치 등을 했다.

윤연수 자매(이수공동체)는 “네 살 어린이부터 젊은 부부, 권사님, 장로님까지 모든 세대가 연합하는 즐거운 자리에 함께 하면서 다시금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를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기도, 가장 큰 힘이자 위로”



이형석 선교사
(일본 후쿠오카 프레이
즈란도교회)

“아침에 주의 인자 하심이 우리를 만족 하게 하사 우리를 일 생 동안 즐겁고 기쁘 게 하소서”(시 90:14).

안녕하세요. 깊은 정취가 넘치는 가을 을 지나 입김이 새어 나오는 겨울에 들어 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부가 최근 일본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매우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는 사이가 아니면 가정에 초청하거나 다른 사람 집을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가가 호호 방문하면서 초인종 누르고 전도하다 보면 적지 않은 분이 집에서 함께 오차를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허락합니다.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가족들 이야기나 교회 생활에 대해 폭넓게 대화할 수 있고, 상대방의 삶에 대해서도 듣는 기회가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최근 아랍인과 결혼한 일본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남편이 이슬람 교인인데 본인은 성경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며칠 뒤 이 가정을 다시 방문했는데, 노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집 아들이 문밖에서 이야기하면 추우니까 집안에서 이야기 하자고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관해 이야기했더니 관심을 가지고 가만히 들었습니다. 집에 불러준 것도 놀라운데, 성경 말씀을 잘 들어줘서 정말 놀랐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열린 교회 전도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아서 앞으로 선교사역이 기대됩니다. 정말 큰 위로이자 격려였습니

다.

제가 섬기는 후쿠오카 프레이즈란도교회에 또 다른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령성도 고지마상이 95살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고지마상은 연세가 많아도 주일예배를 결석하는 일이 없고, 허리도 굽지 않고, 건강하고 늘 밝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과 아기를 안고 오는 젊은 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어서 그 제목을 나눕니다. 선교사들에게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이 가장 큰 힘이자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늘 기도해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먼저 프레이즈란도교회 성도들과 전도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모리와키 레이지로상, 모리와키 쿠니상, 이시카와상, 아랍인과 결혼한 요요코상과 아들 노아군이 일대 일제자양육을 받도록 기도해주시고, 또 방문전도에서 만난 물몬교 신자 카와조예상이 최근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있는데 정서적으로 회복되고,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기도해주시고, 몸이 아픈 타시로상(파킨슨병)과 사토상(심장암), 사케미 마사아키상(심장부정맥), 아베 에이코상(근육무력증)에게 하나님 치료의 손길이 닿아서 회복하도록 기도해주시고, 교회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개인 기도실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법적 하자 없이 공사가 잘 이뤄져서 기도실에 전기가 들어오도록 기도해주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고, 연로하신 어머니가 기력을 회복하시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기도해주시고, 아들 휘가 일본어 공부를 잘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기도해주시고,

권사칼럼

사랑, 그 신비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딸네 집에 급히 전할 물건이 있어서 방문했다. 맞벌이 부부라 빈 아파트에 구름이가 홀로 집을 지키고 있었다. 구름이는 딸네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다. 10년 넘게 키우다 보니 식구나 마찬가지로 다. 외손녀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만큼 크다 보니 이 녀석이 집안의 재롱둥이가 되었다. 딸과 사위는 자연스럽게 구름이의 엄마와 아빠가 되었다. 덩달아 나도 개손주를 둔 할머니가 되었다.

구름이는 얼굴도 귀염성스럽게 생겼지만 하는 짓이 얼마나 영특한지 이 녀석을 보면 외손주를 보는 듯 반갑기 그지없다. 현관 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더니 나를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웃음이 절로 났다. 꼬리를 흔들고 내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펄쩍펄쩍 뛰어올랐다. 오랜만에 보는데도 제 식구를 알아보는 게 신동했다. 어느 손주가 할미를 그리 반길까 싶었다. 혼자 집 지키고 있다가 사람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눈물이 그러한 눈으로 애처롭게 나를 쳐다보며 안아달라고 옷을 물고 늘어졌다. 그 모습에 가슴이 찡해졌다. 덤석 안아 보았더니 내 가슴에 머리를 묻고 폭 안겼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사랑의 교감이 흘렀다. 편안하게 안겨 행복해지는 표정이 사랑스러웠다.

미물인 강아지와 감성이 통해도 이리 따뜻하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그 행복함과 따뜻함을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요즘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신생아 출생율이 급감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낳는 대신 강아지와 고양이를 가족으로 맞이한다. 아기가 타야 할 유모차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태우고 나들이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격세지감이 든다. 우리 신혼 시절엔 자녀 출산부터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들어오면 더 없는 집안의 경사로 여겼다.

지금은 사람보다 개가 더 호강하는 듯 하다. 개 전용 놀이터, 미용실, 호텔 심지어 장례식장까지 애완동물과 관련된 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애완동물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옷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상사의 애견 장례식장에 부의금을 들고 찾아가기도 한다. 니 주객이 전도된 비뚤어진 사랑에 인간의 존엄을 잃어 가는 비애가 느껴지기도 한다.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아갈 때 행복을 느낀다. 사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때 동물에 대한 비정상적인 사랑으로 변질하기도 한다. 동물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전이될 때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지나쳐 동물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넌센스가 아닐까 싶다.

사람은 동물보다 존귀한 존재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특별한 존재다. 동물이 주는 행복과 사람과 나누는 사랑에서 오는 행복은 엄연히 다르다. 사람에게 향해야 할 사랑이 동물을 향해서는 안 된다. 신비로운 사랑의 힘은 동물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되어야 한다.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 사랑할 때 내 주변이 날마다 환희로 변한다.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날 힘을 얻는다. 세상이 더 따뜻해지고 아름답게 변한다. 시들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사랑하는 이들의 미소를 보라. 얼마나 해맑고 생기로운가! 황량한 세상 따뜻한 가슴으로 살아가자. 사랑을 소유하며 누리고 사는 기쁨이 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머물기를 소원한다.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 사랑할 때 내 주변이 날마다 환희로 변한다.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날 힘을 얻는다. 세상이 더 따뜻해지고 아름답게 변한다. 시들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사랑하는 이들의 미소를 보라. 얼마나 해맑고 생기로운가! 황량한 세상 따뜻한 가슴으로 살아가자. 사랑을 소유하며 누리고 사는 기쁨이 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머물기를 소원한다.

신앙에세이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2024년은 사회선교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깊은 해였다. 왜냐하면 첫째, 2024년은 사회선교본부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온누리신문>에 사회선교 사역팀들의 사역의 내용과 의미를 연재하며 지난 10년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훈 목사가 故 하용조 목사의 뒤를 이어 온누리교회 제2기 위임목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회선교본부도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이재훈 목사는 온누리교회가 ‘성육신적 교회’, ‘사회 참여적 교회’,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비전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교회와 사회선교는 분리될 수 없다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기 한국에 들어와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이 그 좋은 예를 보여주었다. 선교사님들은 교회와 사회선교를 구별하지 않았다. 복음을 우선으로 전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고, 아픈 자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교회의 자리가 곧 학교였고, 병원이었다. 교회와 사회선교는 항상 공존해 왔다.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사회선교본부 출범 이래 기존에 해왔던 구제 공할 사역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사역하거나 때로는 정부 기관이나 NGO 단체들과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둘째, 한국에서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가 열린 해였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세계복음주의 교회들의 가장 큰 행사인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열렸다.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타내자’(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를 주제로 200여 국에서 5,00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다. 제4차 로잔대회는 온누리교회에게도 매우 의미가 컸다. 이재훈 목사가 공동대회장으로 섬겼고, CGN은 주관 방송사로서 모든 행사를 전 세계로 송출하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 많은 성도가 행사 기간 내내 중보기도와 자원봉사에 참여하며 대회가 은혜롭게 진행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무엇보다 의미가 큰 것은 제4차 로잔대회의 주제가 담고 있는 의미가 사회선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사명이다.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

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교회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다(마 22:39).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5:40).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교회가 당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선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역이다. 새로운 10년을 향해 달려가는 사회선교본부는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서 사는 형제자매들에게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용산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 31길 70 햇빛산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해외 온누리교회 ●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 미국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6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클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웰링턴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 일본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6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u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 -CI NAKA -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도관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 국내 온누리교회 ●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동규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진숙 김중균 김중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박승현 비 켈 서영철
박씨마 배승현 안환균 이강현 노희태
에릭 마이클 스톨즈 윌버체이
이상은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지연 장광석
정요한 제인랑 존해리 최정현
하효경 황연신

●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병주 강하람 강현구
고우리 구길모 권대식 권영찬
권영갑 김혜영 김도윤 김지영
김상규 김진태 김성국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명배 김오성
김용민 김용산 김유식 김은혜
김재식 김재송 김중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광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식
김홍주 노규석 김지현 노희태
렘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형준 박성진 박성우 박태영
박형준 배형상 배성우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 송동주 송재호 안사뮤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오현교 유진아
유현록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상욱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진기 이찬우 이호준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동윤 정성훈 정성진 정승철
정연상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훈 조바울
조현수 진선미 최대환 최상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충희
하원희 황신연

● 전도사(전임)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대중
신주용 송예찬 안대진 유상하
이형복 임동현 장지훈 조은광
주하늘 황유일

● 부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국내파견 목사

고범석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동규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진숙 김중균 김중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박승현 비 켈 서영철
박씨마 배승현 안환균 이강현 노희태
에릭 마이클 스톨즈 윌버체이
이상은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지연 장광석
정요한 제인랑 존해리 최정현
하효경 황연신

●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병주 강하람 강현구
고우리 구길모 권대식 권영찬
권영갑 김혜영 김도윤 김지영
김상규 김진태 김성국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명배 김오성
김용민 김용산 김유식 김은혜
김재식 김재송 김중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광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식
김홍주 노규석 김지현 노희태
렘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형준 박성진 박성우 박태영
박형준 배형상 배성우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 송동주 송재호 안사뮤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오현교 유진아
유현록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상욱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진기 이찬우 이호준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동윤 정성훈 정성진 정승철
정연상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훈 조바울
조현수 진선미 최대환 최상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충희
하원희 황신연

● 전도사(전임)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대중
신주용 송예찬 안대진 유상하
이형복 임동현 장지훈 조은광
주하늘 황유일

● 부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국내파견 목사

김명훈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
김 완 김 원 김원규 김원준
김유식 김의득 김이곤 김장철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중성
김중송 김주홍 김진국 김창호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창호
문종실 문현구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도 박영국 박우형 박종현
박태성 박홍균 배 문 배남인
백승중 백호현 백홍기 박영배
서진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자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진
엄태현 오성연 우광방 우승근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원영
유재현 유 형 윤기용 윤성열
유지준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근재 이기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용
이성기 이상득 이상욱 이영길
이영재 이영철 이우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구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현오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정하 정강자 정대서
정동원 정문규 정영호 정보원
정승훈 정영열 정영화 정태택
정재현 정하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성업 정희하 정파준
정희원 조해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근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병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종길 최희영 편무하 한갑수
한규중 한태종 한배진 한양희
한종대 한창격 한형식 함곡식
한선조 허광수 허형식 호종일
홍기범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홍해남 홍영욱 홍용오

김명훈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
김 완 김 원 김원규 김원준
김유식 김의득 김이곤 김장철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중성
김중송 김주홍 김진국 김창호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창호
문종실 문현구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도 박영국 박우형 박종현
박태성 박홍균 배 문 배남인
백승중 백호현 백홍기 박영배
서진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자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진
엄태현 오성연 우광방 우승근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원영
유재현 유 형 윤기용 윤성열
유지준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근재 이기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용
이성기 이상득 이상욱 이영길
이영재 이영철 이우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구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현오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정하 정강자 정대서
정동원 정문규 정영호 정보원
정승훈 정영열 정영화 정태택
정재현 정하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성업 정희하 정파준
정희원 조해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근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병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종길 최희영 편무하 한갑수
한규중 한태종 한배진 한양희
한종대 한창격 한형식 함곡식
한선조 허광수 허형식 호종일
홍기범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홍해남 홍영욱 홍용오

김명훈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
김 완 김 원 김원규 김원준
김유식 김의득 김이곤 김장철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중성
김중송 김주홍 김진국 김창호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창호
문종실 문현구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도 박영국 박우형 박종현
박태성 박홍균 배 문 배남인
백승중 백호현 백홍기 박영배
서진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자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진
엄태현 오성연 우광방 우승근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원영
유재현 유 형 윤기용 윤성열
유지준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근재 이기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용
이성기 이상득 이상욱 이영길
이영재 이영철 이우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구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현오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정하 정강자 정대서
정동원 정문규 정영호 정보원
정승훈 정영열 정영화 정태택
정재현 정하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성업 정희하 정파준
정희원 조해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근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병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종길 최희영 편무하 한갑수
한규중 한태종 한배진 한양희
한종대 한창격 한형식 함곡식
한선조 허광수 허형식 호종일
홍기범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홍해남 홍영욱 홍용오

김명훈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
김 완 김 원 김원규 김원준
김유식 김의득 김이곤 김장철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중성
김중송 김주홍 김진국 김창호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창호
문종실 문현구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도 박영국 박우형 박종현
박태성 박홍균 배 문 배남인
백승중 백호현 백홍기 박영배
서진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자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진
엄태현 오성연 우광방 우승근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원영
유재현 유 형 윤기용 윤성열
유지준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근재 이기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용
이성기 이상득 이상욱 이영길
이영재 이영철 이우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구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현오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정하 정강자 정대서
정동원 정문규 정영호 정보원
정승훈 정영열 정영화 정태택
정재현 정하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성업 정희하 정파준
정희원 조해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근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병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종길 최희영 편무하 한갑수
한규중 한태종 한배진 한양희
한종대 한창격 한형식 함곡식
한선조 허광수 허형식 호종일
홍기범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홍해남 홍영욱 홍용오

김명훈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
김 완 김 원 김원규 김원준
김유식 김의득 김이곤 김장철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중성
김중송 김주홍 김진국 김창호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창호
문종실 문현구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도 박영국 박우형 박종현
박태성 박홍균 배 문 배남인
백승중 백호현 백홍기 박영배
서진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자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진
엄태현 오성연 우광방 우승근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원영
유재현 유 형 윤기용 윤성열
유지준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근재 이기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용
이성기 이상득 이상욱 이영길
이영재 이영철 이우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구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현오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정하 정강자 정대서
정동원 정문규 정영호 정보원
정승훈 정영열 정영화 정태택
정재현 정하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성업 정희하 정파준
정희원 조해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근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병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종길 최희영 편무하 한갑수
한규중 한태종 한배진 한양희
한종대 한창격 한형식 함곡식
한선조 허광수 허형식 호종일
홍기범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홍해남 홍영욱 홍용오

김명훈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
김 완 김 원 김원규 김원준
김유식 김의득 김이곤 김장철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중성
김중송 김주홍 김진국 김창호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창호
문종실 문현구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도 박영국 박우형 박종현
박태성 박홍균 배 문 배남인
백승중 백호현 백홍기 박영배
서진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자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진
엄태현 오성연 우광방 우승근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원영
유재현 유 형 윤기용 윤성열
유지준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근재 이기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용
이성기 이상득 이상욱 이영길
이영재 이영철 이우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구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현오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정하 정강자 정대서
정동원 정문규 정영호 정보원
정승훈 정영열 정영화 정태택
정재현 정하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성업 정희하 정파준
정희원 조해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근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병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종길 최희영 편무하 한갑수
한규중 한태종 한배진 한양희
한종대 한창격 한형식 함곡식
한선조 허광수 허형식 호종일
홍기범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홍해남 홍영욱 홍용오

김명훈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
김 완 김 원 김원규 김원준
김유식 김의득 김이곤 김장철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중성
김중송 김주홍 김진국 김창호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창호
문종실 문현구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도 박영국 박우형 박종현
박태성 박홍균 배 문 배남인
백승중 백호현 백홍기 박영배
서진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자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진
엄태현 오성연 우광방 우승근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원영
유재현 유 형 윤기용 윤성열
유지준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근재 이기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용
이성기 이상득 이상욱 이영길
이영재 이영철 이우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구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현오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정하 정강자 정대서
정동원 정문규 정영호 정보원
정승훈 정영열 정영화 정태택
정재현 정하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성업 정희하 정파준
정희원 조해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근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병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종길 최희영 편무하 한갑수
한규중 한태종 한배진 한양희
한종대 한창격 한형식 함곡식
한선조 허광수 허형식 호종일
홍기범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홍해남 홍영욱 홍용오

김명훈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
김 완 김 원 김원규 김원준
김유식 김의득 김이곤 김장철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중성
김중송 김주홍 김진국 김창호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창호
문종실 문현구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도 박영국 박우형 박종현
박태성 박홍균 배 문 배남인
백승중 백호현 백홍기 박영배
서진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자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진
엄태현 오성연 우광방 우승근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원영
유재현 유 형 윤기용 윤성열
유지준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근재 이기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용
이성기 이상득 이상욱 이영길
이영재 이영철 이우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구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현오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정하 정강자 정대서
정동원 정문규 정영호 정보원
정승훈 정영열 정영화 정태택
정재현 정하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성업 정희하 정파준
정희원 조해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근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병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종길 최희영 편무하 한갑수
한규중 한태종 한배진 한양희
한종대 한창격 한형식 함곡식
한선조 허광수 허형식 호종일
홍기범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홍해남 홍영욱 홍용오

김명훈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
김 완 김 원 김원규 김원준
김유식 김의득 김이곤 김장철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중성
김중송 김주홍 김진국 김창호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창호
문종실 문현구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도 박영국 박우형 박종현
박태성 박홍균 배 문 배남인
백승중 백호현 백홍기 박영배
서진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자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진
엄태현 오성연 우광방 우승근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원영
유재현 유 형 윤기용 윤성열
유지준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근재 이기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용
이성기 이상득 이상욱 이영길
이영재 이영철 이우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구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현오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정하 정강자 정대서
정동원 정문규 정영호 정보원
정승훈 정영열 정영화 정태택
정재현 정하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성업 정희하 정파준
정희원 조해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근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병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종길 최희영 편무하 한갑수
한규중 한태종 한배진 한양희
한종대 한창격 한형식 함곡식
한선조 허광수 허형식 호종일
홍기범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홍해남 홍영욱 홍용오

김명훈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
김 완 김 원 김원규 김원준
김유식 김의득 김이곤 김장철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중성
김중송 김주홍 김진국 김창호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창호
문종실 문현구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도 박영국 박우형 박종현
박태성 박홍균 배 문 배남인
백승중 백호현 백홍기 박영배
서진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자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진
엄태현 오성연 우광방 우승근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원영
유재현 유 형 윤기용 윤성열
유지준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근재 이기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용
이성기 이상득 이상욱 이영길
이영재 이영철 이우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구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현오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정하 정강자 정대서
정동원 정문규 정영호 정보원
정승훈 정영열 정영화 정태택
정재현 정하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성업 정희하 정파준
정희원 조해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근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병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종길 최희영 편무하 한갑수
한규중 한태종 한배진 한양희
한종대 한창격 한형식 함곡식
한선조 허광수 허형식 호종일
홍기범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홍해남 홍영욱 홍용오

김명훈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
김 완 김 원 김원규 김원준
김유식 김의득 김이곤 김장철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중성
김중송 김주홍 김진국 김창호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창호
문종실 문현구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한국교회의 열두 돌

The Twelve Stones of the Korean Church

12가지의 상징물을 통해
'한국교회 14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세계 선교와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합니다.



기념과 기억을 상징하는 '길갈의 열두 돌(수 4:1-9)'을
테마로 제작한 <한국교회의 열두 돌>

